GLOBAL
EQUITY
STRATEGY

2026. 4. 20

글로벌투자전략팀

전종규 Senior Analyst
juhn21@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2분기 차이나 전기차 점검

전기차 2.0, 글로벌 & 자율주행을 주목하라

- 전기차 밸류체인 상승 배경: (1) 해외수출, (2) 실적호조, (3) 계절적 성수기 진입
- 전기차 2.0 시장 확대: 글로벌 시장 재편과 자율주행 시장 성장
- 향후 전망: 점진적인 리레이팅 예상

전기차 밸류체인 점검: 전기차 고공행진의 이유

- **중국 전기차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글로벌 전기차 밸류체인 1위에 해당되는 리튬(강봉리튬)- 배터리(CATL)- 완성차(BYD)의 시가총액이 사상 최초로 3.1조 위안을 돌파하였다. 연초 이후 전기차 Big 3의 시가총액은 +17.2% 증가하였다.
- **전기차 밸류체인의 강세 배경은 (1) 해외시장 확대, (2) 실적 호전, (3) 계절적 성수기 진입, 이 세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중국 전기차 수출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수출은 팬데믹 이후 불과 5년 만에 7.7배 증가('20년 수출 108만대 → '25년 832만대)하였는데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은 50.7% 급증하였고 3월 전기차 수출 비중은 50%를 돌파하였다. 둘째, 견조한 실적 모멘텀이다. CATL은 1분기 매출액 1,291억 위안(전년대비 +52.5%), 순이익 207.4억 위안(전년대비 +49%)을 기록하였다.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기차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더불어 2분기 전기차 계절적 성수기 도래를 반영하고 있다.

향후 전망: 전기차 2.0, 글로벌 & 자율주행 성장

-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 Top-tier의 실적 개선을 전망한다.** 중국 전기차 산업은 글로벌 시장의 Major로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고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장이 도래하면서 전동화에 앞선 프론티어의 성장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전기차 산업의 성장은 (I) 준비단계('01~ 14년) → (II) 전기차 1.0 상용화 단계('15~ 24년) → (III) 전기차 2.0 Majority 단계('25~ 35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차이나 전기차 2.0 시대의 패러다임은 "산업구조 재편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확장"이 될 것이다.**
- 중국의 전기차 성장은 글로벌 자동차/배터리 공급망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이다. 중국의 전기차 메이커는 가격 경쟁력과 하드웨어 상품력을 통해서 전기차/배터리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어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의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당사는 15.5 규획 기간 동안('26~30년) 중국 전기차 시장은 국내 판매 2천만대, 해외 수출 1천만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 모빌리티 패러다임은 전장화(Electrification)로 시작해서 자율주행으로 완성되는 구도이다. 모빌리티 하드웨어는 스마트화(Connected car), 공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 생태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먼저 전동화 세대교체가 완료되면서 Big data와 소프트웨어와의 결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베이징과 우한의 로보택시 서비스는 점차 규모의 경제에 다가서고 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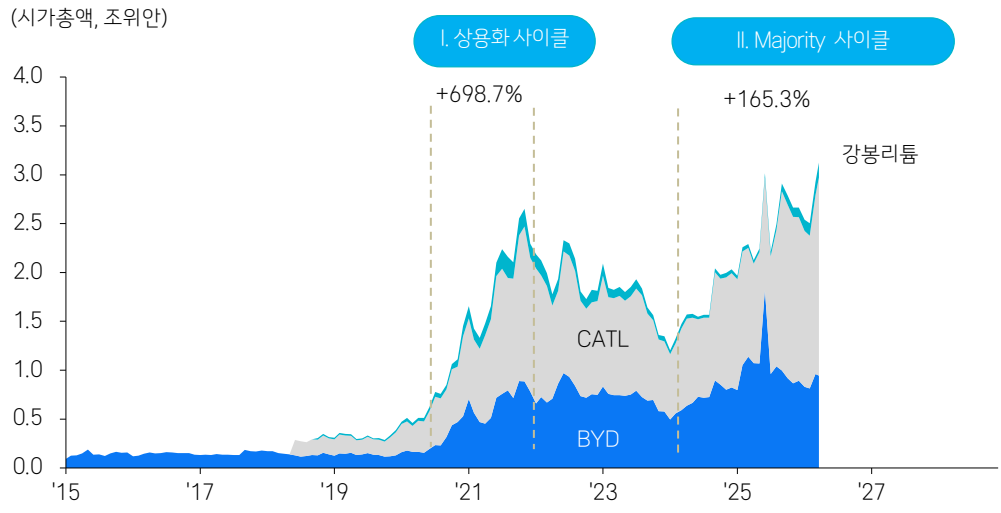
주가흐름 진단

차이나 전기차 밸류체인 강세

상승 배경

- **해외시장과 실적 모멘텀.** 중국 전기차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글로벌 전기차 밸류체인 1위에 해당되는 리튬(강봉리튬)- 배터리(CATL)- 완성차(BYD)의 시가총액 합이 사상 최초로 3.1조 위안을 돌파하였다. 연초 이후 상해증시와 홍콩H 지수가 각각 +2.1%, -0.8%를 기록하며 보합권에 머물렀으나 전기차 Big 3의 시가총액은 +17.2% 증가한 것이다. 올해 중국 전기차 주가의 출발은 부진하였다. 이구환신 효과가 경감되면서 신에너지 자동차 내수 판매가 1~2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의 강세 배경은 (1) 해외시장 성장 확대, (2) 실적 호전, (3) 계절적 성수기 진입, 이 세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중국 전기차 수출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수출은 팬데믹 이후 불과 5년 만에 7.7배 증가('20년 수출 108만대 → '25년 832만대)하였는데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은 50.7% 급증하였고 3월 전기차 수출 비중은 50%를 돌파하였다. 올해 중국 자동차와 전기차 수출은 각각 1100만대와 5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전기차가 내수시장의 성장성 둔화의 벽을 넘어 본격적인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Major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둘째, 견조한 실적 모멘텀이다. CATL은 1분기 매출액 1,291억 위안(전년대비 +52.5%), 순이익 207.4억 위안(전년대비 +49%)을 기록하였다.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기차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올해 중국 정부가 반내권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치열했던 가격 경쟁이 제어되고 가격인상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전기차 밸류체인의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 셋째, 중국 전기차의 계절적 성수기가 도래하였다. 통상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정책 축소와 신차 모델이 부재한 1분기의 판매가 저조하다. 2분기는 자동차 박람회 개최와 더불어 신차 모델 출시가 쏟아지면서 분기별 판매가 증가하는 성수기로 진입하는 시기이다. 지난해 분기별 자동차 수출을 분석해보면 수출비중은 1분기 19%〈2분기 23%〈3분기 27%〈4분기 32%이다. 전기차 시장의 성수기가 시작되었다.

중국 Big 3 전기차 밸류체인 시가총액 사상 최고치 경신



참고:'26년 4월 17일 종가 기준
자료: Wind, 삼성증권

향후 전망

전기차 2.0, 글로벌 & 자율주행 시장 성장

글로벌 시장 재편과 자율주행 시스템

-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 Top-tier의 실적은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전기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Major로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고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장이 도래하면서 전동화에 앞선 프론티어의 성장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 전기차 산업의 성장은 (I) 준비단계('01~ 14년) → (II) 전기차 1.0, 상용화 단계('15~ 24년) → (III) 전기차 2.0, Majority 단계('25~ 35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차 상용화 단계(전기차 1.0)가 하드웨어의 교체 구간이라면 중국 전기차 2.0은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이 50%를 돌파하며 자동차 세대교체가 완성되는 구간이다.

- **차이나 전기차 2.0 시대의 패러다임은 "산업구조 재편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확장"이 될 것이다.** 중국이 차세대 모빌리티의 우위를 점하는 현상은 글로벌 자동차/배터리 공급망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이다. 중국의 전기차 메이커는 신흥국과 유럽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획득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과 하드웨어 상품력을 통해서 중국 전기차/배터리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의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중국의 제조 업그레이드 전략 중에서 전기차/배터리 부문이 가장 먼저 글로벌 Top-tier에 올라섰다. 당사는 15.5 규획 기간 동안('26~30년) 중국 전기차 시장은 국내 판매 2천만대, 해외 수출 1천만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 모빌리티 패러다임은 전장화(Electrification)로 시작해서 자율주행으로 완성되는 구도이다. 모빌리티 하드웨어는 스마트화(Connected car), 공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 생태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먼저 전동화 세대교체가 완료되면서 Big data와 소프트웨어와의 결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베이징과 우한의 로보택시 서비스는 점차 규모의 경제에 다가서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계는 Level 3~4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 테슬라가 FSD에 도전하는 가운데 중국은 바이두와 화웨이, 포니 AI 등이 자율주행의 선두에 있다.

- 공급개혁 점차 강화. 중국 전기차 산업의 과제는 "공급과잉" 해소에 있다. 중국은 전기차 상용화 단계(전기차 1.0)에서 대대적인 투자와 공급과잉이 유발되었다. 이러한 전기차 공급과잉 현상은 중국의 제조업 성장 과정에서 반복되는 결과물로서, (1) 2000년대 전통 제조업(철강/석탄/Labor intensive 산업)에 이어 (2) 2010년 이후 전기차/배터리를 위시한 친환경 밸류체인의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결과로 연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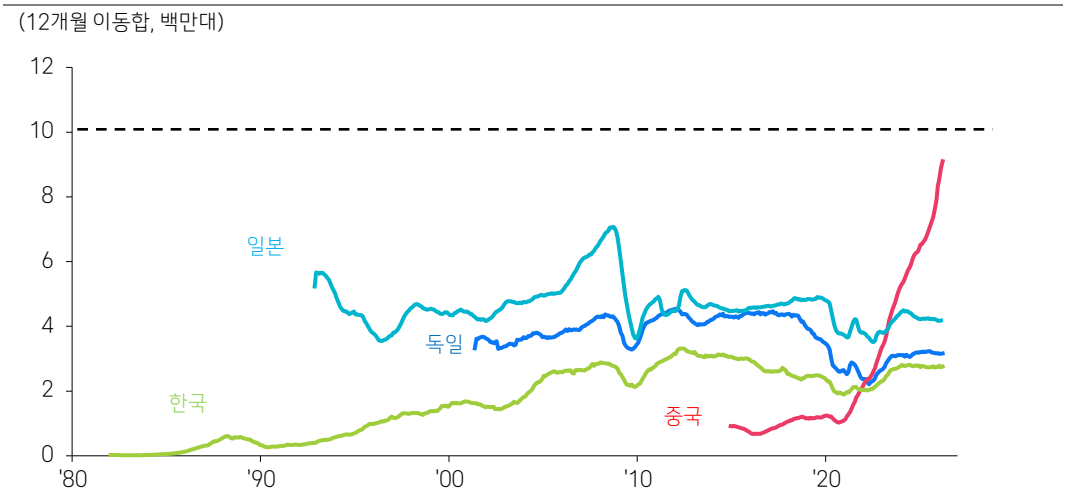
- 15차 5개년 경제규획에서 중국 정부의 공급개혁에 대한 밑그림이 제시되었다. 공급과잉, 무효공급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가격경쟁을 제어(반 내권화)하고 통폐합과 점진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내용이다. 15.5 산업 고도화 정책목표는 "공급과잉 산업 구조조정과 첨단 제조 업그레이드"의 두 가지 축이 작동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반 내권화 정책은 중국 소재-배터리-전기차 완성차의 가격 인상요인을 반영함으로써 업계 선두주자의 실적 개선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Top-tier 중심으로의 구조재편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이다.

차이나 전기차 성장 단계

구분	기간	주요 이벤트	전기차 판매
준비단계	'01~14년	• 2001년 5개년 경제규획, 전기차 연구 프로젝트 선정 • 2006년,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 요강(2006~2020) 발표 • 2010년, 중국 전기차산업 '7대 전략적인 신흥 산업' 포함 • 전기자동차 판매 2015년 50만대, 2020년까지 500만대 목표	• 전기차 밸류체인 구축 구간
Stage 1 **전기차 1.0** (상용화)	'15~24년	• 2015년 제조 2025 전략 발표, 전기자동차 10대 육성 산업 선정 • 2020년 11월 신에너지차 산업발전계획(2021~2035) 발표, • 전기차 상용화 단계 진입: 전기차 침투율 10% 돌파 ('21년 9월) • 2024년 3월, 이구환신 정책 시행, 7월 이구환신 보조금 증액	• '15년 18.9만대 • '24년 1,280만대
Stage 2 **전기차 2.0** Majority (해외/자율주행)	'25~35년	• BYD 유럽공장/신흥시장 공장 가동('24~) • 전기차/배터리 공급 과잉 구조조정 강화('25~) • 바이두 로보택시 상용화('25년~) • 완전 자율 주행시스템 상용화('30년~)	• '25년 1,640만대 • 15.5 경제규획(30년) : 내수 2천만대 : 수출 1천만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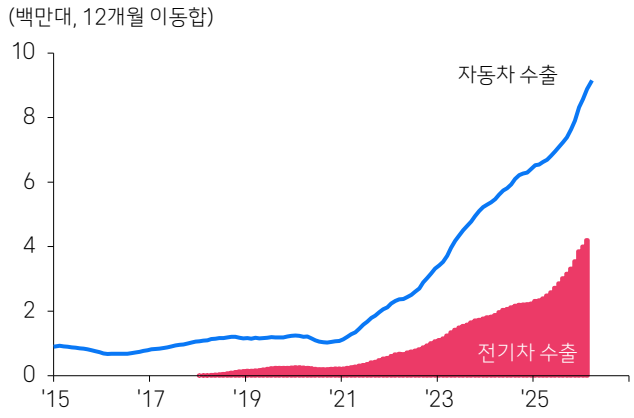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정리

전인미답의 길, 올해 중국 자동차 수출 1100만대 돌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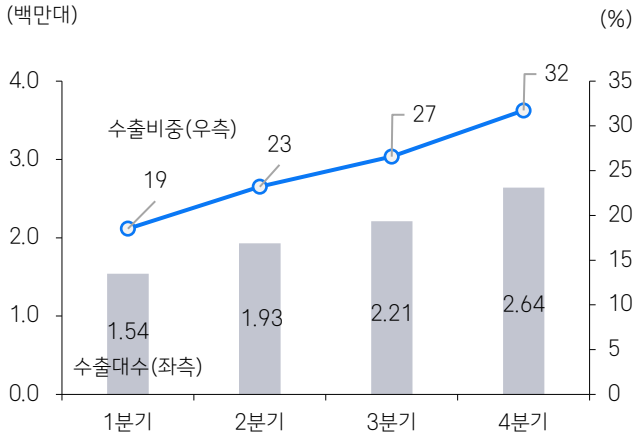
참고: '26년 3월말 기준
자료: CEIC, 삼성증권

중국 3월 전기차 수출비중 50%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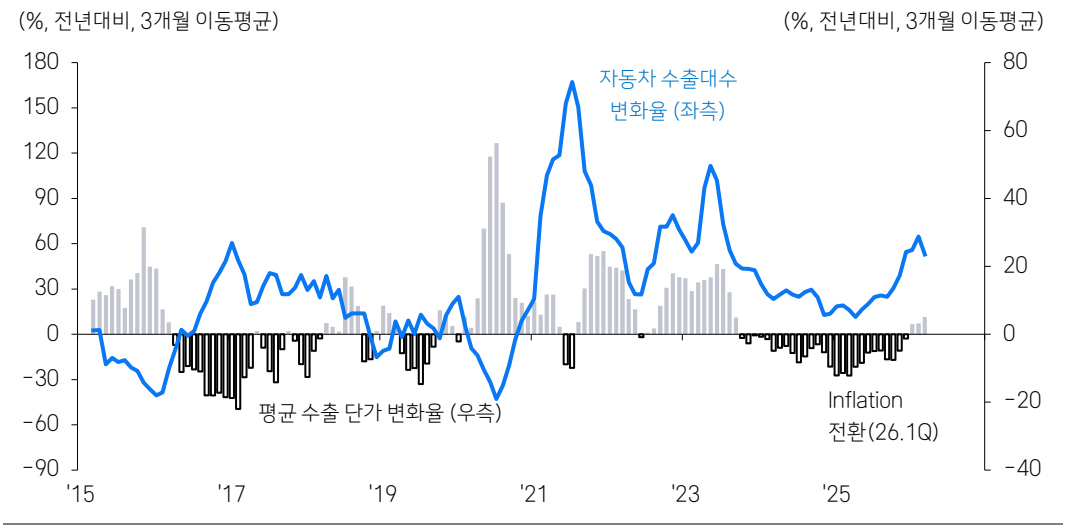
참고: '26년 3월말 기준
자료: CEIC, 삼성증권

중국 수출 구조, 1분기를 저점으로 연말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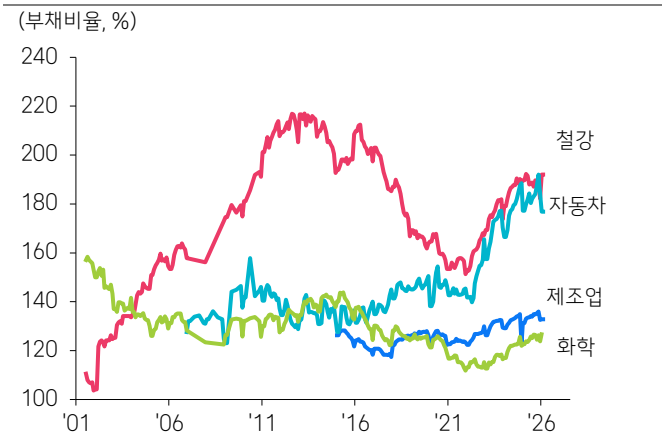
참고: '25년 기준
자료: CEIC, 삼성증권

중국 자동차 수출 가격 상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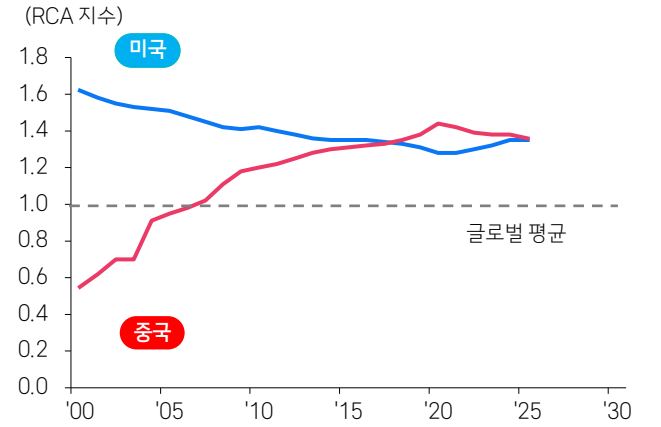
참고: '26년 3월말 기준
자료: CEIC, 삼성증권

중국 공급과잉, 자동차 부채비율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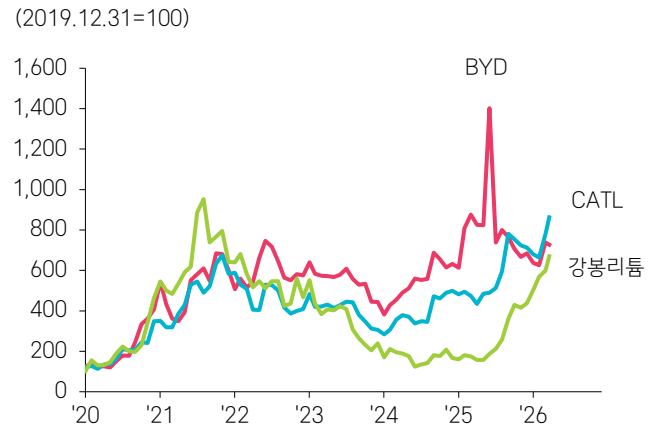
참고: '26년 1분기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중국, 하이테크 수출경쟁력 글로벌 1위 등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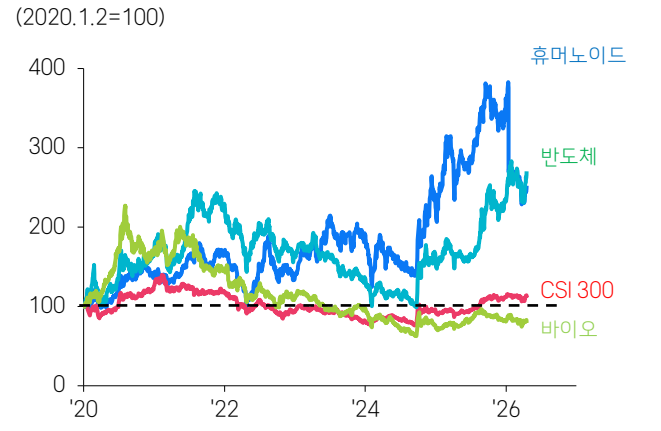
참고: 1965년 벨라 발리사 교수, 하이테크 수출 비중으로 고안한 지표
자료: UN Comtrade, World Bank WITS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 주가 추이



참고: '26년 4월 17일 종가 기준
자료: WIND, 삼성증권

팬데믹 이후 차이나 테크 주가 추이



참고: '26년 4월 17일 종가 기준
자료: CEIC,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